

사설

화합승단으로 가는 길

조계종이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지 100일이 지났지만 분규책임자에 대한 징계문제도 아직도 여진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폭이나 수위에 대해 좀처럼 종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는 이미 재심회계위원회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법률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법률적 문제와는 관계없이 인간적인 동정과 새 집행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측 인사들에 대한 중단의 징계는 명분이나 감정상 어쩔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만천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처님 얼굴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중벌이 정하는 바 최고의 중형으로 징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초심과 재심 회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결정은 이와 같은 불교대중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막상 징계를 결정하고 나서 "그런다고 대상자들이 스스로 가사를 벗지 않을 바에야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는 어찌까지 절친한 도반이었던 사람들을 내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도 작용하는 것 같다. 더욱이 별민이라는 최고의 중징계는 수행자의 목숨줄을 끊어놓은 것이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 보인다.

이미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이 문제가 거듭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경기류에 대한 온건기류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즈음 주목되는 움직임의 하나는 마침 새로 중정을 선출하고 그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회로 징계

를 경감하자는 여론이다. 이는 고산 총무원장 스님이 끊임없이 '무차화합'을 강조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4일 있었던 총무원장이 초창한 간담회는 이런 분위기를 수면 위로 거듭 표출시킨 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한가지 선결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일불제자요 평생을 함께 해온 도반이라 하더라도 흑백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정당한 참회와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토록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대사면'을 논의한다는 것은 종법질서 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살인자였던 앙굴리말라로 승단에 받아들였지만 이는 그가 진정으로 참회했기 때문이었다.

허물에 대한 참회는 수행자의 도리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선(改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화개혁회의측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처사에 달려 있다. 지난해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률적 최종책임은 지고 무조건적이며 공개적인 사과와 참회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이즈음 불교계를 관통하는 정서요, 여론이다.

정화개혁회의측 가담인사들이 조금이라도 수행자적 양심과 애중심이 있다면 이 요구를 따르는 것이 옳다. 그 래야만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입문(立論)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화합의 길로 나서야 할 때다.

'주제가 있는 강좌' 참여 열기

조계사 '새 천년 여는 희망의 조계사'

정토회 '현대인 위한 깨달음의 강좌'

선우도량 '근현대 불교사 바로보기 강좌'

"새로운 포교대안" 긍정적 반응

"20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지혜, 자신을 지탱하는 힘도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0일 오후 2시 새 천년을 여는 희망의 조계사 첫번째 강좌 '신명복(성공회대 교수)이 들려주는 상생하는 삶 이야기' 현상, 조계사(주지 고산) 문화교육관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불자들은 신시의 진솔한 이야기에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그 흔한 불교용어 한마디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장 불교적인 내용으로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조계사 열린강좌를 비롯 최근 불교사 바로보기 강좌,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등 주제가 있는 특별강좌들

이 도심 사찰과 신행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속속 개설돼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포교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법회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진행되고 동시에 신세대에서 청장년층에 이르는 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토회(회주 법륜)는 3월 20일부터 백일법문, 일일특별법회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종교·인류공동체·평화·문명·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진행중이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회장 해담)도 9일부



10일 열린 조계사의 '열린 강좌' 장면.

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사바로보기 강좌를 시작했다. 일반불자와 재가종무원, 불교사 전공자 등이 함께 모여 근현대불교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 법화정사(주지 도림)와 한국 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원장 이은운)에서는 외국인 현각스님(화계사)의 지도로 영어로 배우는 선불교 강좌를 개설, 선불교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밖에 송광사 서울본원 법륜사

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20분 신명복씨와 함께하는 인도의 사원 강좌를 열고 있으며,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40분 법어인도고전신화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이같은 다양한 주제의 강좌는 불자들이 새시대에 대비하는 전문지식과 불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고, 사찰의 문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opia.com)

신도증 소지자 공원 무료입장 조계종-관리공단 다시 마찰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의 국립공원 관람료 사찰 무료 입장 범위를 둘러싸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간에 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일 각 지소장에게 보낸 '신도증 소지자 관리방안 시달' 제하의 업무연락문을 통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5조 4항 제8호)에 따라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은 당해 사찰을 출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

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측은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은 입법 취지상 당해 사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관할 사찰에 적용돼야 한다"며 "공단의 입장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각 사찰의 항의가 계속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공단의 한 관계자는 "조

계종이 신도증 소지자의 무료입장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올 경우 환경부 법무담당관실에 정식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인가 불교대학 관리세칙' 마련

조계종 포교원, 불교대 대표자회의서 공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현)은 15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종단등록 불교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인가 불교대학 관리에 관한 세칙'(제정안)을 공개했다.

신도교육체계 정립에 따른 불교대학의 위상과 단계(6개월미만, 1년, 2년과정)를 구분, 불교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규정은 올 상반기간 신도교육법 제정과 관련해 불교대학의 성격과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가 불교대

5월중 8개교구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덕운)는 12일 회의를 열고 총회의원이 보궐상대인 법주사, 8개교구의 보궐선거를 5월 17일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교구선관위에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27일 실시가 어려운 경우 교구에 따라 17~27일 사이 실시를 권유하기

로 하고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정화개혁회의의 관련 총회의원의 사표수리로 공석이 돼 보궐선거를 실시할 8개 교구는 5교구 법주사, 7교구 수덕사, 9교구 통사, 11교구 불국사, 14교구 범어사, 15교구 풍도사, 17교구 금산사, 23교구 관음사 등이다. 정성운 기자

'수행방법론' 공개 토론 강원연합, 7월경 개최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안)은 16일 조계종 불교회관 1층에서 제1기 제2차 대의원 상견례 및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경 '수행방법론'에 대한 특강 형식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강원연합은 교육부장, 교육국장과 의담을 통해 강원 인연제한문제와 사미·사미니의제 문제, 강원 재정 지원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강원인연제한문제에 대해 교육원은 "전국 강원예 화인이 고루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강원을 1개소 정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현대만화

현대만화



737-8881

봄 불기 2543('99)년 부처님 오신날 주요일정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중요행사	1.연등축제	2543('99)5.16(일)오전 10시~10시	우정국로 동대문운동장	→종로→조계사	봉축위원회
	2.봉축 법요식	2543('99)5.22(토)오전 10시	조계사	봉축위원회/조계사	
	3.시청앞 점등식	2543('99)5.12(수)오후 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4.에기봉 OP 점등식	2543('99)4.22(목)오후 6시 30분	에기봉 OP	봉축위원회/해병청문사	
	5.발심정진주간	2543('99)5.16~5.22	각 사찰, 단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경축행사	1.꽃꽃이 전시회	4.22 ~ 4.23	로얄호텔2층 에메랄드룸	한국불교꽃예술회	771-4500
	2.부모은중송	4.30 ~ 5.1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2273-0237
	3.봉축 '수행목공예품전'	5.2 ~ 5.11	웅진갤러리	육환장연구원	0584-653-6788
	4.제11회 연꽃노래잔치	4.18(에선) 5.2(본선)	불교문화교육관 동국대종강당	서울불교청년회	730-9108
	5.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5.5(수) 10:00	봉은사	원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420-3300
	6.봉축 기념 연주회	5.6(목) 19:00	국립극장 소극장	대한불교 어린이합창단	725-7527
	7.동국문화 예술제	5.6(목)19:00~21:00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	2260-3606
	8.불학연구소 학술세미나	5.7(금)10:00~17:00	중앙승가대학정전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32-4923~4
	9.제가불자 심포지움	5.7(금)18:00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725-6231
	10.우리 옷 바자회	5.8~5.16	조계사내	조계사	732-2183
	11.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5.9(일)14:00	조계사내	파라미터/전국교법사단	723-6165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경축행사	12.참나무 찾는 청소년·어린이 불꽃기 및 그리기 대회	5.9(일) 10:00	노원구 서천사	수덕사서울포교원 서천사	682-5055
	13.제3회 불교사경대회	5.9-5.10	미정(서울·지방)	동방연서회	733-0131
	14.봉축 기념 사진전	5.15-5.22	조계사내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2266-0302
	15.제1회 인권문화제	5.19(수)19:00	조계사	실천불교 전국사기회	725-4277
	16.열기구 축제	5.21-5.22	여의도 고수부지	중앙신도회	733-7277
	17.봉축기념 토포니	5.20(목)15:00	조계사 문화교육관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733-2557
	18.안숙선판소리 '부처님 일대기'	5.2(일)	도안사	도안사	0334-676-8700
	19.봉축기념 학술대회	5.31(월)	불교회관 1층	한국교수불자 연합회	720-6618
	20.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30(일)14:00~18:00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 교회 연합회	735-8165
	21.불교무용단 장단 공연 '님의 소리'	6.3-6.4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손재현 무용단	2260-3420
	22.전통등 전시회	5.7-5.16/5.17-5.22	인천신세계백화점 서울사태빌	전통등연구회	723-0306
	자비손길	1.제1회 장애인 불교성지순례	4.14	여주 신록사	사회복지재단
2.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18	서울랜드	원심회	720-4528
3.자비의 현혈운동		5.1-5.31	조계사내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723-6165
4.노인재소자 위안잔치		5.7 11:00	청송교도소	백련장학회	322-3526
5.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등을 밝히는 작은 마당		5.9	서울역	대학생불교연합	732-0239
6.자비의 등 밝히기		5.3-5.22	장충공원	우리는 선우	2278-8672
7.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		5.15 전후	각 군부대	국불교진흥회	749-5135
8.화강유언서약 및 생명나눔캠페인		5.16	제등행렬구간	생명나눔실천회	734-8050
9.무차연등회 및 영산대제		5.17-5.22	탑골공원	불교자연봉사자연연합회	723-6258
10.결사야동통기 작은음악회		5.17-5.22	탑골공원	불교자연봉사자연연합회	723-6258
11.장애인 날들이		5.30(일)	장충공원	우리는 선우	2278-8672
12.수화 찬불가발표회		5.30(일)	불교방송 3층방담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2202-583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장 고산